

객체화 신체의식과 신체존중감, 자기해석의 관계: 한국 · 중국 · 일본 여대생 비교

김 완 석

아주대학교

박 은 아[†]

대구대학교

Takemoto

Yamaguchi University

김완석(2007)에 의해 한국 표본에 대한 타당화가 이루어진 McKinley와 Hyde(1996)의 객체화 신체의식(Objectified Body Consciousness) 개념이 한국뿐 아니라 중국과 일본에서도 타당한 척도인지 살펴보고자 세 나라 여대생을 대상으로 객체화 신체의식의 요인구조와 객체화 신체의식 하위요인별 차이를 살펴보았다. 또한 객체화 신체의식과 신체존중감, 자기해석(self-construal)의 관계를 삼국 여성에 대하여 비교하였다. 연구결과 한국과 일본 표본에서는 신체수치심과 외모존중감 및 체중존중감 사이에 부적 상관이 나타났으나 중국표본에서는 유의한 관련성이 발견되지 않았고, 신체감시성과 체중존중감의 부적 상관은 일본 표본에서만 유의하였다. 자기해석과 객체화 신체의식의 관계는 삼국 모두에서 의존적 자기해석이 강할수록 신체감시성과 수치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신체의식이 문화적 자기해석과 관련된 현상임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시사점과 한계, 후속 연구 주제에 관해서도 논의하였다.

주요어 : 신체이미지, 객체화 신체의식, 신체존중감, 자기해석(self-construal), 한국, 중국, 일본여성

[†] 교신저자 : 박은아, 대구대학교 심리학과, E-mail : eunap@daegu.ac.kr

사회구성주의적 관점의 학자들은 현대사회에서 여성들이 경험하는 부정적인 신체경험은 주로 여성이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객체화하여 지각하는 현상과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신체의 객체화(objectification of body)란 자신의 신체를 전인격적 주체의 일부로 보지 않고 자신과 분리된 대상으로서 관찰하고 감시하여야 할 객체로 간주하는 것이다. 여성들의 자기 신체에 대해 객체화 의식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 많은 학자들은 대중매체와 같은 사회문화적 환경을 지적한다(Spitzack, 1990; Fredrickson & Roberts, 1997; Harrison & Cantor, 1997 등). 대중 매체에서 제공하는 수많은 콘텐츠들이 여성의 신체를 제 3자의 시선에서 관찰대상이나 이용대상으로 묘사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여성의 신체를 객체화하도록 부추기며, 그 결과 여성들은 자신의 신체를 ‘관찰대상인 무엇’으로 인식하게 되어 자신의 신체를 제 3자의 시선으로 관찰하듯 보는 것을 학습한다. 이와 같은 사회화 과정을 통해 여성들은 문화적 신체표준을 내면화하고 이를 기준삼아 신체를 감시하고 평가하며 결과적으로는 자신의 신체에 대해 부정적인 경험을 하게 된다(McKinley & Hyde, 1996). Fredrickson과 Roberts(1997)의 객체화이론에 따르면 이런 부정적 경험에는 수치심과 불안, 신체 내적 감각에 대한 민감성 저하 뿐만 아니라, 섭식장애와 우울증, 성기능 장애 등 부정적 문제들이 포함된다.

McKinley와 Hyde(1996)는 여성들이 과도하게 마른, 그래서 도달 불가능한 문화적 신체 표준을 내면화하고 이를 마치 자기 자신이 형성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런 표준에 도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신념을 갖게 되는 현상을 객체화 신체의식(objectified body consciousness)이라

칭하며 이런 의식이 높을수록 부정적인 신체 경험, 즉 낮은 신체존중감을 형성한다고 주장하였다. 객체화 신체의식은 신체에 대한 감시(body surveillance), 문화적 신체표준의 내면화에 따른 자기 신체에 대한 수치심(body shame), 외모에 대한 통제신념(appearance control beliefs)이라는 세 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된 개념으로서, 이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Objectified Body Consciousness Scales: OBCS)가 개발되어 신체 이미지 연구 분야에서 비교적 널리 이용되고 있다(예를 들어, Noll & Fredrickson, 1998; Tiggemann, 2005; Forbes, Jobe, & Revak, 2006 등). 우리나라에서도 수년 전부터 여성의 부정적 신체경험이나 부적응적 섭식행동 등 신체 관련 주제에 관심을 갖는 학자들이 객체화 신체의식 개념을 이용하기 시작하였고(예를 들어, 박은아, 2003; 손은정, 2007 등) 최근에는 한국판 객체화 신체의식 척도가 표준화되었다(김완석, 유연재, 박은아, 2007).

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인을 대상으로 서양 문화에서 개발된 객체화 신체의식이 한국을 비롯한 동양 여성들의 신체경험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는 것이다. 신체 객체화 의식이 사회문화적으로 강요된 신체에 대한 표준을 스스로 내면화하여 자기 신체를 감시와 평가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현상을 지칭하는 것이므로, 여성들의 객체화 신체의식은 사회문화적 환경에 따라 정도가 달리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신체에 대한 감시자적 의식은 결과적으로 부정적 신체경험을 유발하여 낮은 신체존중감을 형성하게 하는데, 그렇다면 객체화 신체의식의 정도에 따라 부정적 신체경험(즉, 신체존중감)의 정도에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신체존중감이 자기존중감을 형성하는 중요한 원천이라 할 때(김완

석, 2007), 여성들의 부정적 신체경험은 건강한 자기개념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객체화 신체의식이 사회문화적 환경의 영향으로 형성되는 자기 신체를 바라보는 인식이므로 개인이 자신을 환경과 얼마나 독립된 존재로 인식하는가 혹은 환경에 밀접하게 연관된 존재로 인식하는가 하는 자기인식의 방식 혹은 자기개념의 해석들(self-construal)에 따라서도 객체화 신체의식 형성 정도에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는 여성들의 긍정적 자기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인 객체화 신체의식이 사회문화적 요인과 개인적 요인에 의해 형성되는 것으로 보고, 한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고 서양문화와 비교할 때 문화적 배경이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 일본 및 중국 여성들에게서는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요인구조를 탐색하고, 객체화 신체의식이 자기해석(self-construal)과는 어떤 관련성이 있으며, 이것이 신체존중감에 미치는 영향력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세 나라 여성들을 비교하고자 한다. 기존의 많은 연구들이 신체경험에 대해 성차의 존재를 밝힌 바는 있지만(Cash, Winstead, & Janda, 1986; Mintz & Betz, 1986; Garner, 2002; Stiegel-Moore & Franko, 2002 등), 문화적 배경에 따라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루어진 바가 거의 없기 때문에, 본 연구를 통하여 객체화 신체의식의 문화에 따른 차이를 탐색하고자 한다.

객체화 신체의식

신체감시성(body surveillance)

신체감시성은 자신을 객체화하여 타인의 시선에서 자신의 신체를 마치 감시하듯 바라보

는 것을 말한다. 여성은 자신과 자기 신체의 관계를 마치 ‘외부관찰자’와 ‘객체’처럼 형성하고, 이 같은 신체감시성을 자기사랑, 건강, 개인적인 성취와 관련짓는다(Spitzack, 1990).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자기 신체를 분리된 객체로서 관찰하고 감시해온 여성들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자신을 타인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스스로를 감시한다. 또한 사회가 제시하는 이상적 신체기준(ideal body standards)에 근거하여 자신의 신체를 비교하고 평가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여성들은 기준과의 불일치를 지각하게 된다. 이러한 불일치가 개인에게 중요한 문제일 경우에는 우울이나 열등감과 같은 부정적 심리경험을 하게 된다(Carver & Scheier, 1981).

신체수치심(body shame)

문화적 신체표준은 이상적인 신체이미지를 보여주는데, 이것은 여성들로 하여금 자기 신체를 비교하도록 만든다. 문화적 신체표준을 내면화하게 되면 여성은 이 기준이 사회적 압력에 의한 것이라고 인식하지 않고 스스로 그 기준을 형성한 것으로 생각하게 된다. 그리고 이 기준에 의해 끊임없이 자기 신체를 비교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여성은 자기 신체에 대해 수치심(body shame)을 경험한다(Bartky, 1988). 신체에 대한 수치심은 사회가 요구하는 이상적인 신체를 기준으로 삼고 자신의 신체가 사회적 기준과 동일하면 자신이 가치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수치심을 느낀다는 것이다. 수치심의 결과로 자신을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열등한 존재로 지각하며 스스로 차별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신체객체화를 통해 느끼는 수치감은 신체에 대한 특정 감정이 아닌 자아 전반을 포괄하는

것으로, 자신의 외모를 둘러싼 좌절감으로 연결된다(McKinley & Hyde, 1996). 이렇게 여성들은 매스 미디어에 등장하는 이상적 아름다움을 내면화하는데 이러한 신체이미지를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완전히 달성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 결과 정상체중의 여성들조차도 자신의 신체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하고, 수치심을 느끼며 체중감소를 위해 노력한다(Rodin, Silberstein, & Striegel-Moore, 1985).

외모에 대한 통제신념(appearance control beliefs)

통제신념은 자신의 외모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신념을 말한다. 즉, 내가 얼마나 내 외모를 사회에서 요구하는, 자신에게 내면화된 '기준'에 맞게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한 신념이다. 객체화된 신체의식은 여성이 노력하면 문화적 기준에 맞게 외모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갖고 있음을 전제로 한다. 여성들이 자기 외모를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유능감을 느끼도록 하는 중요한 원천으로서 사람은 자신을 통제하고 있다고 믿을 때 자기존중감과 신체적, 심리적 안녕감이 높아진다(Taylor, 1989). Mckinley와 Hyde(1996)는 매스미디어가 사회문화적인 미의 기준을 여성들에게 전달하고 내면화시킬 뿐 아니라 그러한 미(美)를 여성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 도달할 수 있다는 신념을 만들고, 자신의 신체를 이상화된 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하는 것은 개인의 능력과 책임으로 인식하게 만든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신체 통제신념은 외모에 대한 문화적 기준이 달성하기 어려운 것일 때 특히 중요하다. 여성이 자기 외모를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신체감시성이나 수치심을 어느 정도 경감시킬 수 있기 때

문이다. 그들에 따르면 신체감시성과 수치심은 신체존중감과 부적 상관을, 신체 통제신념은 신체존중감과 정적 상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자기 노력을 통해 체중을 감소시키고 외모를 개선할 수 있다고 믿는 여성일수록 신체존중감이 높고 섭식절제(restricted eating) 빈도가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Harrison & Cantor, 1997; McKinley, 1998; Garner, 2002 등). 따라서 운동이나 다이어트 등 개인의 노력이 필요한 신체관리행동 의도에는 신체통제신념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한편, 객체화 신체의식은 자기 신체를 마치 외부에 존재하는 타인의 몸처럼 객체화하여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개인에 따라 그 정도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Robert와 Gettman(2004)은 문장재배열 과제를 통해 신체 객체화를 활성화시키는 연구를 수행한 바 있는데, 성별 차이를 살펴본 결과 여성은 자기 객체화가 객체화 단서에 의해 잘 활성화되는 반면 남성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Strelan과 Hargreaves(2005)의 연구에서는 남성에게 비해 여성이 객체화 정도가 높고, 자기와 다른 사람을 객체화하는 정도에서도 여성이 더 높게 나타나 성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듯 자기 신체를 객체화하여 인식하는 정도는 개인에 따라 혹은 성별에 따라 차이를 갖는데, 문화적 배경에 따라서도 신체 인식에서 차이가 존재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신체존중감

신체존중감은 자기존중감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자기개념에서 파생된 것으로 볼 수 있다(김완석, 2007). 일찍이 James(1890)가

자기를 물질적 자기(material self), 사회적 자기(social self), 정신적 자기(spiritual self)로 구분하고, 물질적 자기는 자신의 신체와 소유물을 통한 자신의 특성에 대한 지각이라 하였다(한규석, 1995에서 재인용). 신체는 개인의 삶에서 중요한 것이어서 신체에 대한 개인의 긍정적 경험(즉, 신체존중감)은 인간의 몸에 관한 광범위한 행동영역에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신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현대인의 삶에서 신체와 관련된 많은 적응적 문제들(예를 들면 부적절한 섭식제한, 약물복용, 무분별한 성형수술 등)은 심리학을 비롯한 여러 학문 영역의 주요 연구 주제로 대두되었다. 특히 정신의학, 영양학, 여성학, 심리학 분야 등에서 개인의 부적응적 행동을 유발하는 원인으로서 신체이미지 왜곡 혹은 부정적 신체존중감의 영향을 논의하고 있다(Mintz & Betz, 1986; Wade & Copper, 1999; Polce-Lynch, Myers, Kliewer, & Kilmartin, 2001; Tiggemann, 2005 등). 그런데, 그동안 이루어진 신체이미지에 관한 선행 연구들을 보면 신체존중감을 주로 신체 외형과 체중에 국한하여 개념화하고 측정하였다(Franzoi & Shields, 1984; Pliner & Chaiken, 1990; Mendelson, Mendelson & Andrews, 2000 등). 이는 신체에 관련된 많은 문제들이 주로 체중이나 외모와 관련한 부적응적 행동들이어서 이런 현상들을 설명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반면, Cash 등은 신체이미지를 다루면서 외모(appearance)뿐 아니라 신체의 기능(fitness)과 건강(health)까지 포함하여 개념화하였다(Brown, Cash, & Miluka, 1990).

김완석(2007)은 우리나라 표본을 대상으로 하여 남녀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신체존중감 척도를 제작하였는데, 이 척도는 기존의

신체존중감 척도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적, 측정방법적 문제들을 보완한 것으로 신뢰도와 타당도를 갖춘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는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하여 신체존중감을 체형존중감과 체기능존중감으로 개념화하고 이를 검증하였는데, 구조방정식을 통한 모형검증 결과 2요인 구조보다 3요인 구조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고 요인의 문항을 검토한 결과 체형존중감이 외모에 관한 것과 체중에 관한 것으로 구분되었다. 이에 이론적으로 가정한 2요인 구조의 신체존중감 개념을 외모존중감, 체중존중감, 그리고 체기능존중감의 3요인으로 확정하였다. 이렇게 3요인 구조로 이루어진 신체존중감은 여성 뿐 아니라 남성에게서도 타당한 것으로 확인된 바, 외모의 생김새에 관한 것과 별개로 체중 요인이 신체에 대한 긍정적 경험에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신체존중감의 하위 요인들 각각이 전체 신체존중감에 미치는 영향력에서는 성별 차이가 존재한다. 외국의 신체존중감 연구 결과들에서도 성차의 존재는 이미 밝혀진 바 있지만(Mintz & Betz, 1986; Mendelson et al., 2000 등), 김완석의 연구에 의하면 남성과 달리 여성들은 외모존중감과 체중존중감이 체기능존중감과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신체존중감의 세 하위요인들과 전반적 자기존중감 사이의 관련성에서도 남성과 여성은 차이가 있어서, 남성은 외모존중감, 체중존중감, 체기능존중감이 각각 자기존중감과 .40 이상의 상관을 보인 반면, 여성은 외모존중감, 체중존중감과 자기존중감은 관련성이 유의하나 체기능존중감은 자기존중감과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여성들의 경우 남성과 달리 신체경험이 자기존중감에 미치는 영향력은 주로 외모와 체중에 대한 경험과 관련되며,

신체의 기능(즉, 건강)은 자기존중감과 거의 관련이 없음을 의미한다. Halliwell와 Duttmar (2003)는 신체의 의미지각에 관한 질적 연구를 수행한 후 남성은 신체를 통합적(holistic)으로 인식하는 반면, 여성은 개별적(differentiated)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였는데, 이런 주장을 본 연구의 결과와 관련지어 해석하면 남성들은 신체의 기능, 체중, 외모가 모두 신체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여성은 외모와 체중에 대한 존중감만이 신체존중감에 관련될 뿐 체기능에 대한 평가는 신체존중감에 영향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결과는 현재 우리나라 여성들의 왜곡된 신체의식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즉, 신체를 주로 외모와 체중에 근거하여 지각하고 이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신체존중감을 형성하며 나아가 외모와 체중을 중심으로 자기에 대한 전반적 평가(자기존중감)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하는데, 이런 결과는 여성들의 과도한 다이어트 행동이나 섭식장애 등 부적응적 행동이 신체, 특히 외모와 체중에 대한 편향된 의식에서 기인한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자기해석: 독립적-의존적 자기(independent-interdependent self-construal)

많은 문화권에서의 자기개념에 대한 분석을 통해 Markus와 Kitayama(1991)는 두 가지 유형의 자기개념 해석들(self-construal)을 제시하면서, 두 가지 자기개념은 개인의 동기, 인지 및 행동에 체계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Markus와 Kitayama의 독립적-관계적 자기개념에 대하여 Singelis(1994)는 집합적 수준이 아니라 개인적 수준에서 문화적 차이를 반영한 자기개념을 제안하였는데, 독립적-의존적 자기

개념(independent-interdependent self-construal)이다. 이는 개인이 자기를 타인과 관련된 존재로서 인식하거나 혹은 타인과 분리된 존재로 인식하는 사고, 느낌, 행위의 총체라고 정의하였다. 그에 따르면 서구의 개인주의 문화는 개별성(separateness)과 독특성(uniqueness)이 자기개념 발달의 기초가 되는데 이것은 독립적 자기해석(independent self-construal), 비서구의 집합주의 문화권을 언급하는 특징으로 연계성(connectedness)과 관계(relationship)에 대한 강조를 반영한 자기를 의존적 자기해석(interdependent self-construal)이라 명명하였다. 독립적 자기개념을 가진 사람은 독립성 및 자기충족성에 가치를 부여하여 '나'의 측면에서 사고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의존적 자기개념을 가진 사람은 내집단 구성원들 사이의 조화를 유지하기 위한 사회적 규범에 따라 행동하며 따라서 '우리'라는 관점에서 사고하는 경향이 있다(Gardner, Gabriel & Lee, 1999). 따라서 의존적 자기개념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건, 대상, 행위에 대한 태도나 행동이 그가 속한 집단의 욕구와 어떻게 관련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반면 독립적 자기개념을 가진 사람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독특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당연하기 때문에 자신의 태도나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고 표현하는 것을 바람직한 행위 규범으로 인식한다(이성수, 김완석, 김정식, 2005).

이렇게 개인이 자기개념을 형성하는 데에는 문화적 자기개념의 차이가 반영되는데, 신체에 대한 인식에서도 자기개념을 형성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문화적 차이가 반영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렇다면, 독립적 자기개념을 형성한 개인은 자신의 개별성과 독특성이 중요하므로, 신체에 대해서도 타인과의 비

교나 타인의 시선에 의한 평가적 인식보다는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신체 지각이 신체존중감에 더 많이 영향을 미치는 반면, 의존적 자기개념을 형성하고 있는 개인은 자신의 독특성보다는 자신이 소속된 집단의 규범에 의거하여 타인의 평가에 근거한 자기인식이 일어나므로 신체에 대해서도 타인의 시선과 평가를 의식하고 그에 근거하여 신체존중감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추론할 수 있다.

연구문제

본 연구는 영문으로 제작된 객체화 신체의식 척도(OBCS)를 일본어와 중국어로 번역하여 각국 여대생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표준화된 한국판 객체화 신체의식 척도(K-OBCS)의 요인구조와 비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판 객체화 신체의식 척도는 미국의 원척도와 동일한 요인구조를 갖는 것으로 확인된 바(김완석, 유연재, 박은아, 2007), 서구적 신체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는 동양 여성들로서 서구문화를 보다 더 일찍 받아들인 일본과 최근 문화 개방이 급격히 진행 중인 중국 여대생을 대상으로 객체화 신체의식 정도에서 차이가 존재하는지 탐색하고자 한다. 또한, 객체화 신체의식은 여성이 자기 신체를 부정적으로 경험하도록 만드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세 나라 여성의 신체존중감에는 어떤 차이가 있으며 객체화 신체의식 하위요인들과 신체존중감의 관계는 어떠한지 알아보하고자 한다.

한편, 자기개념을 구성하는 방식으로서 자신을 독립된 존재로서 인식하는가 혹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인식하는 가는 자기개념 형성 및 자기인식의 문화적 차이를 설명하는

유용한 개념으로 사용되어 왔다(Markus & Kitayama, 1991).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신체에 대한 인식, 자기 신체를 객체화하여 인식하는 정도에서도 기본적으로 자기해석(self-construal)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여 한국, 일본, 중국 여성들의 자기해석과 객체화 신체의식, 그리고 신체존중감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 보고 비교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조사대상¹⁾

한국표본은 서울과 경기, 경북지역 종합대학에 재학 중인 여학생 16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참여자의 평균 연령은 20.4세(SD=2.6세)였다. 일본표본은 오사카 지역의 2개 대학에서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140명의 여학생이 참여하였고 평균 연령은 19.7세(SD=0.9세)였다. 중국표본의 경우는 현지에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한국에 유학중인 중국 여대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한국에 체류한 기간이 1년 이내로 한국어에 서툴러서 한국 문화의 영향을 거의 받지 못하였다고 판단되는 여대생들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는데, 총 90명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측정도구

1) 본 연구에서 수집한 자료는 ‘김완석, 김정식 (2007). 동아시아 여성들의 신체가치관과 신체존중감: 한국, 중국, 일본의 비교’와 동일한 표본임을 밝힙니다.

객체화 신체의식 척도(Objectified Body Consciousness Scales)

McKinley와 Hyde(1996)에 의하여 개발된 척도로서, 신체감시성, 신체수치심, 통제신념 세 하위 요인 각각 8문항으로 이루어진 총 24문항의 6점 리커트식 척도이다. 한국표본에 대해서는 김완석 등(2007)에 의하여 표준화된 한국판 객체화 신체의식 척도(K-OBCS)를 사용하였고, 일본과 중국 표본에 대해서는 각각 일본어와 중국어로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일본어 번역판의 경우 영어와 일본어 및 한국어에 능통한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영어 문항의 의미를 잘 내포하도록 의역하였는데, 각 문항당 2-3개의 번안 문항을 만들었다. 이후 일본어에 능통한 한국사람 2인에게 원문항과 그 의미가 가장 일치하는 일본어 문항을 선정하도록 하여 일치도가 높은 문항을 24문항 선정하였다. 중국어의 경우에도 한국어와 중국어 및 영어에 능통한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일본어 번역과 마찬가지로 과정을 거쳐 원문항과 그 의미가 가장 잘 맞는 중국어 문항을 24문항 선정하였다.

신체존중감 척도

김완석(2007)이 개발하고 타당화한 한국판 전반적 신체존중감 척도(Korean Overall Body Esteem Scale: KOBES)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자신의 신체특성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측정하는 것으로서 외모존중감, 체중존중감, 체기능존중감의 세 하위척도로 리커트 방식의 4점짜리 1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들의 연구에서 신체존중감 하위 척도들의 신뢰도는 각각 외모존중감 6문항은 .825, 체중존중감 3문항은 .822, 체기능존중감 9문항은 .896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자기해석(self-construal) 척도

Takata, Omoto와 Seike(1996)의 독립적-의존적 자기해석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20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7점 리커트 형식으로 측정한다. 일본어로 제작된 척도로서 한국어와 중국어로 각각 번역하였으며, 각각 두 언어에 대하여 번역과 역번역 과정을 거쳐 의미적 동등성을 최대한 갖추도록 노력하였다.

결 과

객체화 신체의식 요인구조 확인

미국의 여대생을 대상으로 개발된 객체화 신체의식(OBC)이 일본과 중국 여대생에게서도 동일한 요인구조와 문항으로 구성되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한국과 일본, 중국표본에 대하여 각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한국자료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KMO는 .755, 구형성 검증결과 $\chi^2=1282.31$, $p<.001$ 로 나타나 표본의 요인구조는 비교적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McKinley 등(1996)의 OBC 원척도와 이를 바탕으로 한국 여성에 대해 검증한 박은아(2003)의 연구에서 모두 3요인 구조를 보고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도 요인수를 3개로 지정하여 주성분 분석과 사각회전(direct oblimin) 방식으로 요인분석 하였다.

한국 표본의 요인구조는 전체 24문항 중 2문항을 제외한 3요인 구조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1). 18번과 20번 문항의 경우 초기 요인추출값이 .20 이하로 낮고, 해당 요인에서의 요인부하량도 .30에 미치지 못하여 제외하였다. 하위척도들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감시성 척도가 .84, 수치심척도가 .82로

표 1. OBCS 문항의 요인구조와 신뢰도 (한국)

문항	요인1	요인2	요인3	b^2	$Cronbach's\ \alpha$
신체감시성(Surveillance)					
1 나는 내 겉모습에 거의 신경쓰지 않는다(r)	.686			.479	0.841
2 나는 옷을 입을 때 어떻게 보이느냐보다는 편안한 것이 더 중요하다(r)	.704			.502	
3 나는 내 외모보다 신체상태를 더 많이 생각한다(r)	.692			.491	
4 나는 내 겉모습을 다른 사람들과 거의 비교하지 않는다(r)	.574			.411	
5 나는 내가 어떻게 보일까에 대해 하루에도 여러 번 생각한다	.666			.470	
6 내가 입고 있는 옷이 내 외모를 돋보이게 하고 있는지 자주 신경쓴다	.686			.481	
7 나는 내 겉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는지 거의 신경쓰지 않는다(r)	.813			.643	
8 내 몸이 '어떻게 보이는가'보다 내 몸이 '할 수 있는 것'에 더 관심이 많다(r)	.597			.363	
신체수치심(Shame)					
9 체중을 조절하지 못하면 내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788			.617	0.823
10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겉모습이 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내 자신이 창피하게 느껴진다	.373	.621		.621	
11 외모를 가꾸는데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내가 한심한 사람처럼 느껴진다	.348	.621		.601	
12 사람들이 나의 실제 몸무게를 알게 되면 창피할 것 같다		.692		.466	
13 내가 해야 하는 운동을 하지 않더라도 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r)		.526		.310	
14 운동을 충분히 하지 않으면, 내가 괜찮은 사람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r)		.630		.407	
15 내 몸무게를 조절할 수 없더라도 괜찮다고 생각한다(r)		.570		.347	
16 내가 생각하는 적당한 사이즈가 아닐 때 나는 부끄러움을 느낀다		.726		.614	
통제신념(Control Belief)					
17 나는 사람들의 외모는 타고난 것이어서 변화시킬 수 없다고 생각한다		.513	.324	.0661	
19 사람들이 노력하면 자신이 원하는 만큼 예뻐/멋있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569	.331		
21 나는 사람들의 몸무게는 대부분 유전적인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고 생각한다(r)		.512	.273		
22 내가 아무리 몸무게를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더라도 내 몸무게는 항상 비슷할 것이다(r)		.742	.555		
23 내가 충분히 노력하면 원하는 몸무게가 될 수 있다		.735	.545		
24 체형을 결정하는 것은 대부분 유전적 요인이다(r)		.494	.259		
eigenvalue	4.964	2.798	2.348		
설명변량(%)	22.562	12.718	10.673		
누적설명변량(%)	22.562	35.280	45.953		

주. (r)은 역산 문항

만족할 만한 수준이지만, 통제신념 척도는 .66 정도로 다소 낮았다.

다음은 일본자료에 대한 분석결과이다. 우선 표본자료가 요인분석하기에 적절한지를 판단하기 위해 변수들간의 상관을 분석하였는데 KMO는 .682, 구형성 검증결과 $\chi^2=699.71, p<$

.001로 요인분석을 수행하기에 안정적인 구조임을 확인하였다. 요인분석 방법은 앞서 한국자료와 동일하게 주성분분석과 사각회전방식을 선택하였다.

일본자료에 대해서도 3요인 구조를 가정하여 요인분석한 결과 총 7문항이 제거되었는데,

표 2. OBCS 문항의 요인구조와 신뢰도 (일본)

문항	요인1	요인2	요인3	h^2	Cronbach's α
신체감시성(OBC-Surveillance)					
1 나는 내 걸모습에 거의 신경쓰지 않는다(r)	.534			.304	.739
2 옷을 입을 때 어떻게 보이느냐보다 편안한 것이 더 중요하다(r)	.543			.350	
3 나는 내 외모보다 신체상태를 더 많이 생각한다(r)	.573			.423	
4 나는 내 걸모습을 다른 사람들과 거의 비교하지 않는다(r)	.704			.502	
7 나는 내 걸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는지 거의 신경쓰지 않는다(r)	.761			.600	
8 내몸이 '어떻게 보이는가'보다 내몸이 '할 수 있는 것'에 더 관심이 많다(r)	.764			.599	
신체수치심(OBC-Shame)					
9 체중을 조절하지 못하면 내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659		.440	.521
10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걸모습이 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내 자신이 창피하게 느껴진다		-.727		.524	
11 외모를 가꾸는데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내가 한심한 사람처럼 느껴진다		-.659		.435	
12 사람들이 나의 실제 몸무게를 알게되면 창피할 것 같다	.339	-.520		.410	
16 내가 생각하는 적당한 신체사이즈가 아닐 때 부끄러움을 느낀다		-.638		.521	
22 아무리 몸무게를 변화시키려 노력해도 내 체중은 항상 비슷할 것이다(r)	.456			.282	
통제신념(OBC-Control Belief)					
17 사람의 외모는 타고난 것이어서 변화시킬 수 없다고 생각한다(r)	.326		.607	.511	.508
18 대부분의 좋은 외모 특성은 타고나는 것이다(r)			.646	.469	
19 사람들이 노력한다면 자기가 원하는 만큼 예뻐(멋있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417	.231	
21 나는 사람들의 몸무게는 대부분 유전적인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고 생각한다(r)	.353	.454		.389	
24 체형을 결정하는 것은 대부분 유전적인 요인이다(r)			.567	.473	
eigenvalue	3.199	2.685	1.592		
설명변량(%)	18.818	15.796	9.367		
누적설명변량(%)	18.818	34.614	43.981		

주. (r)은 역산문항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요인별로 해당 문항들이 원칙도의 요인구조와 유사하게 추출되었다. 구체적으로 신체감시성(요인1) 8문항 중 두 문항(5, 6번)이 제거되었고, 신체수치심(요인2)에서는 3문항(13, 14, 15번)이 제거되고 원칙도의 통제신념에 해당하는 한 문항이 속하였으며, 통제신념(요인3)에는 2문항(20, 23번)이 제거되었다. 추출된 요인구조는 전체 변량의 43.981%를 설명하였고, 요인별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신체감시성 .74, 수치심 .52, 통제신념 .51로 신체감시성을 제외하고는 다소 신뢰도가 낮게 나타났다.

표 3. OBCS 문항의 요인구조와 신뢰도 (중국)

문항	요인1	요인2	요인3	b^2	Cronbach's α
통제신념(OBC-Control Belief)					
19	사람들이 노력한다면 자신들이 원하는 만큼 예뻐/멋있어 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679		.483	.650
20	나는 내 외모에 거의 통제력이 없다고 생각한다(r)	-.512		.352	
22	내가 아무리 몸무게를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더라도 내 몸무게는 항상 비슷할 것이다(r)	-.618	-.375	.465	
23	내가 충분히 노력하면 원하는 몸무게가 될 수 있다.	.791		.701	
신체수치심(OBC-Shame)					
5	나는 내가 어떻게 보일까에 대해 하루에도 여러 번 생각한다.	.825		.704	.736
6	내가 입고 있는 옷이 내 외모를 돋보이게 하고 있는지 자주 신경쓴다.	.743		.580	
10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걸모습(외모)이 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내 자신이 창피하게 느껴진다.	-.322	.721	.594	
11	외모를 가꾸는데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내가 한심한 사람처럼 느껴진다.	.612		.420	
14	나는 내가 운동을 충분히 하지 않으면, 괜찮은 사람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	.499		.274	
신체감시성(OBC-Surveillance)					
1	나는 내 걸모습을 거의 신경쓰지 않는다.(r)		.709	.588	.792
2	옷을 입을 때 어떻게 보이느냐보다는 편한 것 이 더 중요하다(r)		.514	.328	
3	나는 내 외모보다 신체 상태(느낌)를 더 많이 생각한다.(r)		.672	.542	
4	나는 내 걸모습을 다른 사람들과 거의 비교하지 않는다.(r)		.819	.669	
7	나는 내 걸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는지 거의 신경쓰지 않는다.(r)		.488	.203	
.....					
eigenvalue	3.327	2.213	1.479		
설명변량(%)	23.765	15.805	10.564		
.....					
누적설명변량(%)	23.765	39.570	50.134		

주. (r)은 역산 문항

중국표본에 대해서도 요인분석을 동일한 방식으로 수행하였는데, KMO는 .607, 구형성 검증결과 $\chi^2=529.07$, $p<.001$ 로 나타나 요인분석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수준임을 확인하였다. 중국표본에 대해서도 3요인 구조를 가정하여 요인분석한 결과(표 3), 1요인에는 통제신념, 2요인은 수치심, 3요인에 신체감시성 문항들이 추출되었다. 원칙도의 24문항 중 총 10개 문항이 삭제되어 상당히 많은 문항들이 제거되었지만 추출된 요인구조는 전체 변량의 50.134%를 설명하였고, 요인별 신뢰도 계수(Cronbach's α) 또한 신체감시성 .79, 수치심 .74, 통제신념 .65로 비교적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세 나라 여성들의 객체화 신체의식 요인구조를 살펴본 결과 한국 여성들은 원칙도가 제작된 미국 여성들과 객체화 신체의식 개념이 거의 동등한 구조를 이루고 문항 수준에서도 거의 유사함을 갖추고 있는 반면, 일본과 중국 표본에서는 원칙도의 문항 중 상당수가 요인을 구성하는데 부적절한 것으로 나타나 삭제되었다. 하지만, 추출된 요인구조는 미국의 원칙도에서 가정한 요인 개념을 충분히 반영하며, 문항의 수는 축소되었지만 각 요인에 해당하는 문항들은 일본과 중국 표본에서도 거의 동일한 개념으로 구조화되어 나타났다. 다만 중국 여성들은 객체화 신체의식의 하위 요인 중 타인의 시선으로 자기신체를 인식하는 신체감시성(1요인) 2문항이 수치심 요인으로 나타나서 차이를 보였다.

객체화 신체의식 삼국 비교

세 나라 여성들의 객체화 신체의식 정도에 어떤 차이가 존재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국

가간 차이를 검증하였다. 그런데, 한국, 일본, 중국 여성들의 객체화 신체의식 요인을 구성하는 하위 문항이 서로 달라, 세 나라 여성들의 객체화 신체의식의 하위요인을 구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세 나라 여성들의 객체화 신체의식을 아우르는 하나의 요인 구조를 산출하고자 세 나라 자료를 통합하여 요인분석을 재 실시하였다. 먼저 표본의 적절성 검증 결과 KMO는 .757, Bartlett's 구형성 검증 결과 $\chi^2=529.07$, $p<.001$ 로 나타났다. 주성분분석과 사각회전 방식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요인추출량이 1이상인 6개 요인이 나타났다는데, 내용적으로 검토하였을 때 이론적으로 가정한 3개 요인이 세부적으로 나뉘어 추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초기 요인추출량이 .20 이하인 두 문항(13번, 15번)을 우선 제거하고, 이론적으로 가정한 3요인을 지정하고 해석가능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구조를 산출한 결과 18문항으로 이루어진 3요인 구조를 도출하였다.

표 4는 통합한 자료의 객체화 신체의식 요인구조이다. 삼국 여성의 통합자료에 대한 요인구조를 보면 전체적으로 볼 때, 삼국 여성 통합자료의 요인구조는 원칙도의 신체감시성 2문항이 수치심 요인으로 구성된 것을 제외하면 24문항 중 6문항을 제거한 원칙도의 요인구조가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났다.

이렇게 구성된 요인을 바탕으로 객체화 신체의식 하위 요인별 평균점수를 산출하고 이것을 세 나라 여성에 대해 비교하였다. 평균간 차이검증 결과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전반적으로 일본과 한국이 중국에 비해 객체화 신체의식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신체감시성은 일본(M=4.68, SD=.78)이 가장 높고 한국(M=4.01, SD=.82)이 그 다음이며 중

표 4. OBCS 문항의 요인구조와 신뢰도 (한·중·일 통합자료)

문항	요인1	요인2	요인3	R^2	Cronbach's α
신체감시성(Surveillance)					
1 나는 내 겉모습에 거의 신경쓰지 않는다(r)	.669			.464	0.822
2 나는 옷을 입을 때 어떻게 보이느냐보다는 편안한 것이 더 중요하다(r)	.729			.533	
3 나는 내 외모보다 신체상태를 더 많이 생각한다(r)	.732			.544	
4 나는 내 겉모습을 다른 사람들과 거의 비교하지 않는다(r)	.760			.584	
7 나는 내 겉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는지 거의 신경쓰지 않는다(r)	.726			.534	
8 내 몸이 '어떻게 보이는가'보다 내 몸이 '할 수 있는 것'에 더 관심이 많다(r)	.679			.477	
신체수치심(Shame)					
5 나는 내가 어떻게 보일까에 대해 하루에도 여러 번 생각한다	.559			.370	0.731
6 내가 입고 있는 옷이 내 외모를 돋보이게 하고 있는지 자주 신경쓴다	.546			.349	
9 체중을 조절하지 못하면 내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565			.323	
10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겉모습이 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내 자신이 창피하게 느껴진다	.757			.576	
11 외모를 가꾸는데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내가 한심한 사람처럼 느껴진다	.713			.520	
14 내가 운동을 충분히 하지 않으면, 괜찮은 사람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r)	.499			.296	
16 나는 내가 생각하는 적당한 사이즈가 아닐 때 부끄러움을 느낀다	.330	.580		.430	
통제신념(Control Belief)					
19 사람들이 노력하면 자신이 원하는 만큼 예뻐/멋있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585	.431		.547	
21 나는 사람들의 몸무게는 대부분 유전적인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고 생각한다(r)	.523	.347			
22 내가 아무리 몸무게를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더라도 내 몸무게는 항상 비슷할 것이다(r)	.685	.499			
23 내가 충분히 노력하면 원하는 몸무게가 될 수 있다	.690	.545			
24 체형을 결정하는 것은 대부분 유전적 요인이다(r)	.439	.273			
eigenvalue	3.783	2.532	1.773		
설명변량(%)	21.016	14.065	9.852		
누적설명변량(%)	21.016	35.081	44.932		

주. (r)은 역산 문항

국(M=3.23, SD=.82)은 가장 낮게 나타나 세 나라 여성 간에 유의한 차이가 드러났다, $F(2, 389)=89.936, p<.001$. 반면 신체수치심은 한국(M=3.48, SD=.89)이 일본(M=3.05, SD=.84)과 중국(M=3.00, SD=.83)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F(2, 388)=12.792, p<.001$. 신체에 대한 통제

표 5. OBCS 하위요인별 한국, 일본, 중국의 평균값 차이검증 결과

OBC 하위요인	한국 (N=160)	중국 (N=90)	일본 (N=141)	F	사후검증 (Duncan)
신체감시성	4.01 (.82)	3.23 (.82)	4.68 (.78)	89.936*	중<한<일
신체수치심	3.48 (.89)	3.00 (.83)	3.05 (.84)	12.792*	중,일<한
통제신념	4.42 (.72)	3.83 (.74)	4.04 (.79)	19.386*	중<일<한

* $p < .001$

신념 또한 한국(M=4.42, SD=.72)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일본(M=4.04, SD=.79)이 높으며, 중국(M=3.83, SD=.74)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F(2,388)=19.386, p < .001$.

객체화 신체의식과 신체존중감의 관계 비교

다음은 세 나라 여성의 신체존중감 정도를 살펴보았다. 서구에서 이루어진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자기 신체에 대해 감시성 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신체수치심이 높을수록 신체존중감이 낮고, 반면 신체 통제신념이 높을수록 신체존중감도 높은 것으로 밝혀져 있는데, 본 연구의 대상인 한국, 일본, 중국 여성들의 경우 신체존중감 정도는 어떠하며, 객체화 신체 의식과 신체존중감은 어떻게 관련성을 보이는지 분석하였다.

먼저 세 나라 여성들의 신체존중감 정도를 비교하기 위해 신체존중감 하위요인을 동일하게 구성하였는데, 김완석과 김정식(2007)이 산출한 신체존중감 요인 구조에 근거하여 외모존중감, 체중존중감, 체기능존중감의 평균값을 산출하였다.

표 6을 보면 신체존중감 하위요인별로 볼 때, 외모존중감은 일본여성이 중국과 한국여성에 비해 유의하게 낮고, $F(2,386)=83.41, p < .001$, 체중존중감은 한국과 일본여성이 중국 여성에 비해 낮으며, $F(2,387)=9.62, p < .001$, 체기능존중감의 경우는 일본여성이 가장 높고, 한국여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F(2,386)=14.85, p < .001$. 즉, 일본 여성들은 외모와 체중에 대해서는 존중감이 낮은 편이나 건강에 대해서는 존중감이 높은 양상을 보여 주고, 반대로 중국 여성은 외모존중감과 체중

표 6. 신체존중감 하위요인별 한국, 일본, 중국의 평균 차이검증 결과

	한국 (N=159)	중국 (N=90)	일본 (N=140)	F	사후검증 (Duncan)
외모존중감	2.47 (.44)	2.43 (.44)	1.81 (.53)	83.41*	일<한,중
체중존중감	2.46 (.78)	2.73 (.53)	2.32 (.67)	9.62*	일,한<중
체기능존중감	2.75 (.47)	2.86 (.36)	3.06 (.43)	19.81*	한<중<일
신체존중감전체	2.56 (.42)	2.67 (.34)	2.40 (.38)	14.85*	일<한<중

* $p < .001$

존중감은 높으나 체기능존중감은 보통수준이고, 한국 여성은 외모존중감과 체중존중감은 중간수준이고 체기능존중감은 가장 낮은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신체존중감 하위요인과 객체화 신체 의식 하위요인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표 7과 같이 세 나라 여성 간에 경향성이 다르게 나

타났다. 한국과 일본표본에서는 신체감시성이 높을수록 신체수치심도 높은 정(+)적 관계성이 나타났으나, 한국 $r=.45, p<.001$, 일본 $r=.15, p<.05$, 중국표본에서는 상관이 유의미하지 않고, 신체수치심과 통제신념의 관련성은 한국표본에서는 유의하지 않으나 중국과 일본 표본에서는 각각 $r=-.29, p<.01$, $r=-.24, p<.01$

표 7. 국가별 객체화 신체 의식, 신체존중감 하위요인 간의 상관계수

국가		신체 감시성	신체 수치심	통제 신념	외모 존중감	체중 존중감	체기능 존중감
한국 (N=159)	신체감시성	1					
	신체수치심	.45**	1				
	통제신념	.03	-.06	1			
	외모존중감	-.14	-.26**	.01	1		
	체중존중감	-.02	-.41**	.05	.50**	1	
	체기능존중감	.05	-.01	.09	.28**	.11	1
	신체존중감전체	-.04	-.35**	.01	.77**	.84**	.54**
중국 (N=90)	신체감시성	1					
	신체수치심	.16	1				
	통제신념	-.23*	-.29**	1			
	외모존중감	-.17	.09	.05	1		
	체중존중감	-.07	-.10	.06	.31**	1	
	체기능존중감	-.10	-.01	.03	.41**	.37**	1
	신체존중감전체	-.15	-.02	.07	.75**	.79**	.73**
일본 (N=140)	신체감시성	1					
	신체수치심	.15*	1				
	통제신념	.10	-.24**	1			
	외모존중감	-.06	-.11	.10	1		
	체중존중감	-.24**	-.52**	.21**	.44**	1	
	체기능존중감	.13	-.05	.16	.10	.06	1
	신체존중감전체	-.11	-.36**	.23**	.75**	.81**	.45**

** $p<.01$, * $p<.05$

의 부(-)적 상관이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McKinley와 Hyde(1996)가 미국 표본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 신체감시성과 신체수치심이 통제신념과 부(+)적 상관이 있음을 보고하였는데, 한국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박은아(2003), 김완석과 유연재(2007)의 연구에서는 통제신념과 신체감시성, 신체수치심은 상관이 관찰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도 한국표본에서는 일본이나 중국과 달리 통제신념이 신체감시성이나 신체수치심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아서 선행 연구들과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었는데, 한국 여성들의 이런 경향은 중국과 일본표본에서 신체수치심이 통제신념과 유의미한 부(-)적 관련성을 나타낸 것과 차이를 갖는다.

신체감시성과 신체존중감의 관계에서도 국가간 차이가 있어서 한국과 중국표본에서는 신체감시성이 신체존중감과 관련성이 없는데 일본표본에서는 신체감시성과 체중존중감 간에 부적 상관($r=-.24, p<.01$)을 보였다. 또한, 한국과 일본표본에서는 신체수치심이 체중존중감과 $r=-.41, p<.01, r=-.52, p<.01$ 의 높은 부적 관련성을 보이지만, 중국표본의 경우는 신체수치심과 체중존중감은 물론 신체존중감 하위요인 어느 것과도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통제신념의 경우 한국과 중국표본에서는 신체존중감과 아무런 유의미한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은 반면, 일본표본에서는 체중존중감과 $r=.21, p<.01$ 의 정적 관련성을 보여주었다. 이런 결과는 미국에서 실시된 McKinley 등(1998)의 연구나 한국에서의 이전 연구와는 다른 결과이다. 즉, McKinley 등(1996, 1998), 박은아(2003), 김완석 등(2007)의 결과에서는 신체감시성이 높을수록 신체존중감이 낮아서 감시성이 신체에 대해 부정적 경험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지적되었으나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한국과 중국여성의 경우 신체감시성이 신체존중감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일본표본에서만 관련성이 유의미했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주목할 부분은 신체수치심과 체중존중감의 부(-)적 관련성이 일본과 한국표본에서는 높게 나타난 데 비해, 중국표본에서는 관련성이 관찰되지 않은 점이다. 이는 여성들의 자기 신체에 대한 부정적 감정경험은 특히 체중에서 기인하는 것임을 추론하도록 하는데, 이런 경향성이 한국과 일본여성에게서는 관찰되지만 중국여성들에게서는 나타나지 않아 날씬한 신체에 대한 여성들의 선망 혹은 날씬한 신체를 바람직하게 여기는 태도는 서구 문화에 대한 개방이 최근에 이루어진 중국 여성에 비해 한국과 일본 여성들에게서 더 강하게 형성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한국과 일본표본간의 차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한국표본의 경우 신체수치심과 외모존중감($r=-.26, p<.01$), 체중존중감($r=-.41, p<.01$)간의 상관이 모두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이는데 비해 일본표본은 수치심과 체중존중감이 높은 부적상관($r=-.52, p<.01$)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한국여성과 일본여성이 신체에 대해 수치심을 느끼는 요인이 차이가 있으며, 일본여성은 한국이나 중국여성에 비해 보다 더 체중에 근거하여 신체존중감을 형성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런 결과는 신체감시성과 체중존중감 사이의 부(-)적 관련성이 일본 표본에서만 나타난 것과도 관련된다, $r=-.24, p<.01$. 그런데, 일본여성은 한국이나 중국여성보다 신체감시성이 높고(표 5), 외모존중감과 체중존중감은 한국과 중국여성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6). 이렇게 일본 여성의 신체감시성이 한국과 중국여성에 비해 높고,

체중에 근거하여 신체존중감을 형성하기 때문에 체중에 대하여 제 3자적인 감시적 시선이 집중되어 있고 그 결과 외모존중감과 체중존중감이 한국이나 중국에 비해 더 낮은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이런 결과는 최근 Heine 등(2008)의 연구에서 일본인이 서구인에 비해 시각적인 객관적 자기인식(visual objective self-awareness) 경향성이 높게 나타난 것과도 관련되어 보인다.

객체화 신체 의식과 자기해석의 관계 비교

다음은 자신을 인식하는 방식에서 문화적 배경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지적한 Markus와 Kitayama(1991)의 주장에 근거하여 한국, 일본, 중국 세 나라 여성들의 자기인식에서의 차이를 알아보고, 이것이 신체에 대한 객체화 의식과는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먼

저 세 나라 여성들의 자기해석(self-construal) 차이를 비교하였다.

한국, 중국, 일본의 자기해석 평균점수를 보면 표 8에 제시된 바와 같이 독립적 자기(independent self)는 일본표본이 한국과 중국표본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반면, $F(2,385)=14.37, p<.001$, 의존적 자기(interdependent self)는 일본, 한국, 중국의 순으로 나타났다, $F(2,385)=14.80, p<.001$. 이는 일본이 한국보다, 그리고 한국이 중국보다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를 인식하는 정도가 높으며, 반대로 자신을 독립적인 존재로 인식하는 정도는 한국과 중국여성이 일본여성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세 나라 여성들의 자기해석과 객체화 신체 의식 하위요인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표 9를 보면 세 나라 모두에서 의존적 자기(interdependent self)와 신체감시성간의 정(+)

표 8. 독립적-의존적 자기의 평균 및 차이검증 결과

자기해석	한국 (N=158)	중국 (N=90)	일본 (N=140)	F	사후검증 (Duncan)
독립적 자기	4.60 (.73)	4.47 (.78)	4.12 (.82)	14.37*	일<한, 중
의존적 자기	4.87 (.54)	4.68 (.71)	5.11 (.59)	14.80*	중<한<일

* $p<.001$

표 9. 국가별 객체화신체 의식, 자기해석의 상관관계

	한국 (N=158)		중국 (N=90)		일본 (N=140)	
	독립적 자기	의존적 자기	독립적 자기	의존적 자기	독립적 자기	의존적 자기
신체감시성	-.11	.37**	-.06	.30**	-.19*	.21*
신체수치심	-.05	.35**	.16	.27*	-.11	.31**
통제신념	.20*	-.01	.01	-.06	.10	-.22*

** $p<.01$, * $p<.05$

상관이 유의하게 관찰되었고, 일본 표본에서는 독립적 자기(independent self)와 신체감시성 간의 부(-)적 상관도 유의하게 나타났다, $r = -.19, p < .05$. 신체수치심과 의존적 자기와의 정(+)적 관련성 또한 삼국 여성 모두에서 관찰되어, 의존적 자기해석이 높을수록 신체수치심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즉, 자신을 타인과의 관계속에서 인식하는 의존적 자기해석을 할수록 자신을 제 3자적 시선으로 감시하고 신체에 대해 수치심을 느낀다는 것이다. 통제신념의 경우는 한국과 일본표본에서만 관계성이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한국표본에서는 독립적 자기와 통제신념간에 $r = .20, p < .05$ 의 정적 관련성이, 일본표본에서는 의존적 자기와 통제신념간에 $r = -.22, p < .05$ 의 부적 관련성이 관찰되었다. 즉, 한국여성들은 독립적 자기해석을 할수록 신체를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일본표본의 경우는 반대로 의존적 자기해석을 할수록 신체를 자신의 의지대로 통제할 수 없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 차이가 관찰되었다.

논 의

본 연구는 여성들이 사회문화적인 이상적인 미의 가치를 내면화하여 자기 신체를 타인의 시선으로 감시하고, 이상적인 미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할 때 경험하는 수치심의 정도, 그리고 자기 신체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신념을 측정하기 위해 McKinley와 Hyde(1996)가 제안한 객체화 신체의식이 동양 여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개념인지 알아보고자 한국과 일본, 중국 여대생을 대상으로 객체화 신체의식 척도의 요인구조를

검증하였다. 또한 객체화 신체의식이 신체중감과는 어떤 관련성을 갖는지에 관한 국가간 비교를 통해 객체화 신체의식이 여성의 신체경험에 미치는 영향력에서의 문화차이를 살펴보고, 객체화 신체의식을 형성하는 데 관련될 것으로 예상한 독립적-의존적 자기해석과의 상관 정도를 세 나라 여성들에 대하여 비교하였다.

한국 여대생 표본의 객체화 신체의식의 요인구조는 미국판과 거의 동일하였고, 각 하위 척도의 Cronbach's alpha도 .84, .82, .66으로 만족할만한 수준이었다. 반면, 일본과 중국표본의 경우는 원척도의 24문항에서 7-10문항 정도를 제거하였을 때 원척도의 요인구조와 유사한 3요인 구조가 도출되었는데, 축소된 15문항 내외의 객체화 신체의식 요인구조는 원척도에서 제안한 문항들이 각 요인에 그대로 적재되어 개념적으로는 거의 유사한 요인구조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중국표본에서 신체감시성 일부 문항이 수치심 요인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이렇게 원척도의 문항들이 모두 사용되지 못하고 일부 문항으로 요인구조를 추출하게 된 원인은 추론해보면 우선 각 나라의 언어로 문항 번역 과정에서 원척도의 의미가 충실하게 동등성을 반영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하지만, 축소된 문항으로 구성된 일본의 객체화 신체의식 요인구조는 총변량의 43%, 중국표본의 경우 총변량의 50%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나 축소된 척도라고 하더라도 객체화 신체의식을 측정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한국, 중국, 일본 세 나라 자료를 통합하여 추출한 요인구조를 바탕으로 객체화 신체의식 하위요인별로 삼국 여성이 어떤 차이를 갖는지 살펴본 결과 일본은 한국보다,

그리고 한국은 중국보다 신체감시성 정도가 유의하게 높고, 수치심은 한국이 일본과 중국에 비해 높으며, 신체 통제신념은 한국이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 높았다. 즉, 일본여성들은 신체에 대하여 한국이나 중국보다 더 많이 자기 신체를 감시의 시선으로 관찰하고, 신체에 대한 수치심은 한국 여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런 결과는 일본이 한국, 중국여성보다 외모존중감이 유의하게 낮고, 체중존중감은 일본과 한국이 중국보다 낮은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즉, 한국표본에서 외모존중감과 수치심($r=-.26, p<.01$) 및 체중존중감과 수치심($r=-.41, p<.01$)의 부적상관을 보였고, 일본표본에서도 체중존중감과 감시성($r=-.24, p<.01$), 체중존중감과 수치심($r=-.52, p<.01$)간에 높은 부적상관이 나타나서 아무런 상관이 발견되지 않은 중국과 차이를 보였다. 특히 체중존중감과 수치심간의 높은 부적 상관은 마른 몸을 이상적인 신체로 생각하는 미의 기준이 여성들로 하여금 자기 신체를 부정적으로 지각하게 하는 주요 원인인데, 이와 같은 체중에 대한 인식이 중국 여성들에게는 상대적으로 낮게 형성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객체화 신체 의식이 자기해석과 관련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 또한 흥미로운 부분이다. 즉 여성이 독립적 자기해석을 할수록 신체에 대해서 감시자적 시선을 갖지 않으며, 반대로 자신을 집단에 속한 개체로서 상호의존적 존재로 인식할수록 신체에 대해서도 타인의 시선으로 자신을 감시하는 경향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또한, 의존적 자기해석은 신체 수치심과도 정적 상관이 나타나서 타인을 의식하는 자기해석을 하는 여성일수록 신체에 대해 수치심을 경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자기해석과 신체 객체화 인식간의 관련

성을 검토한 결과에 의하면 일본여성이 한국과 중국에 비해 외모존중감, 체중존중감이 낮게 나타난 결과 또한 자기해석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즉, 일본여성은 독립적 자기해석이 중국과 한국에 비해 낮고 의존적 자기해석이 중국과 한국에 비해 높는데, 의존적 자기해석을 할수록 감시성과 수치심이 높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일본여성이 한국이나 중국여성에게 비해 외모존중감과 체중존중감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이런 결과는 김완석과 김정식(2007)의 연구에서 일본 여성들이 타인의 관점에서 자신의 신체를 평가하는 경향성(신체평가 소재)이 한국이나 중국 여성에 비해 높게 나타난 결과와 일맥상통한다. 또 한가지 흥미로운 결과로는 한국여성이 일본이나 중국여성에게 비해 신체 통제신념이 높고 독립적 자기해석 정도가 높는데, 통제신념은 독립적 자기와 정적 상관을, 의존적 자기와 부적 상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즉, 자신을 독립된 주체로 인식할수록 신체를 자기 의지에 따라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반면, 자신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고 생각할수록 신체를 자신의 의지대로 통제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한국여성들은 일본여성에게 비해 독립적 자기해석 정도가 강하기 때문에 신체 통제신념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개인차 요인으로서 자기해석은 여성이 자신의 몸을 어떻게 인식하고 다루는가에 관한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본 연구의 결과는 보여주고 있다. 즉, 의존적 자기해석이 높을수록 신체감시성이 높아져 자신을 타인의 신체처럼 감시하듯 바라보고, 이런 인식은 독립적인 자기개념을 형성한 사람보다 의존적 자기개념을 형성한 사람에게서 더 강하게 나타나는 특성이

라는 점은 세 나라 여성 표본에서 동일하게 관찰되었다. 특히 일본표본에서는 독립적 자기해석을 형성한 사람일수록 신체감시성이 낮게 나타나서 여성이 자기 몸을 주체적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독립적 자기개념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본 연구의 결과는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에 대한 제언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있다. 우선, 한국표본에서는 신체 통제신념이 수치심이나 감시성과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아 김완석 등(2007)의 결과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객체화 신체의식을 개념화함에 있어서 통제신념을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게 보이지만, 중국과 일본표본에서는 신체수치심과 통제신념이 유의한 부적 관련성을 보여주어 차이가 나타났다. 따라서, 객체화 신체의식 개념화함에 있어서 신체감시성과 수치심만으로 이루어진 2요인 구조가 바람직한지 아니면 통제신념을 포함하는 3요인 구조가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새로운 표본을 대상으로 하는 추가적인 검증이 요구된다. 또한, 통제신념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루지 못하였지만 향후 연구에서는 신체 통제신념이 높을수록 신체관리행동이 적극적이 되는지, 혹은 독립적 자기해석을 형성한 사람들이 신체관리행동에서 적극성을 갖는지 등을 체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신체관리 행동의 종류도 약물복용, 운동, 화장이나 치장, 성형수술 등 개인의 노력과 의지가 개입되는 정도에 따라서 유형을 세분화하여 통제신념과의 관련성, 그리고 자기개념과의 연관성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향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는 충분히 다루지 못한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표들이

여성의 객체화 신체의식 정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일본, 중국의 세 나라 여성들을 단순히 비교하였으나 이들 여성들의 인구사회적, 경제적 수준에 따라서도 신체에 대한 인식과 신체관리 행동에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객체화 신체의식이 마스크 등을 통하여 여성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유포된 문화적 가치기준으로서 일반적으로 자본주의는 신체의 자본화를 촉진한다는 주장(Bourdieu, 1973; Shilling, 2000 에서 재인용)을 감안하면 자본주의가 발달하고 자본주의 가치관을 많이 수용한 일본에 비해 자본주의 가치관 수용이 비교적 최근에 이루어진 중국의 객체화 신체의식이 수준이 낮게 나타난 것이 문화적 배경과 무관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본 연구에서는 중국 여성들이 세 나라 중에서 객체화 신체의식 수준이 가장 낮은 것 외에도 신체존중감은 가장 높고 객체화 신체의식 하위요인들과 외모존중감, 체중존중감, 및 체기능존중감 어느 것보다도 유의미한 상관이 발견되지 않았는데,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향후 체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20대 초반의 여대생만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연령집단에 따라서 객체화 신체의식 수준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객체화 신체의식의 구조가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나이가 든 여성 집단일수록 객체화 신체의식 수준이 낮을 수 있으며, 외모뿐만 아니라 신체기능과 건강에 대한 지각과 평가가 객체화 신체의식에 포함될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서 향후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김완석 (2007). 전반적 신체존중감 척도(KOBES): 개발 및 성차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2(2), 231-253.
- 김완석, 김정식 (2007). 동아시아 여대생들의 신체가치관과 신체존중감: 한국, 중국, 일본의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3(4), 113-134.
- 김완석, 유연재 (2007). 신체가치척도의 개발과 타당화: 신체조작성척도와 신체편향성척도.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6(1), 1-21.
- 김완석, 유연재, 박은아 (2007). 한국판 객체화 신체 의식 척도(K-OBCS): 개발과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6(2), 329-349.
- 박은아 (2003). 신체존중감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비교문화적 연구: 한국과 미국의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2(2), 35-56.
- 손은정 (2007). 공격 자기의식, 사회문화적 가치의 내면화 및 신체상에 대한 태도가 성형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2(1), 63-81.
- 이성수, 김완석, 김정식 (2005). 자기해석의 관점에서 소비자 불평의도와 행동에 대한 이해. *한국심리학회지: 소비자·광고*, 6(1), 19-42.
- 한규석 (1995). *사회심리학의 이해*. 서울: 학지사.
- Bartky, S. L. (1988). Foucault, femininity, and the modernization of patriarchal power. In I. Diamond, & L. Quinby (Eds.), *Feminism and Foucault: Reflections on resistance*, 61-86. Boston: Northeastern University Press.
- Brown, T. A., Cash, T. F., & Miluka, P. J. (1990). Attitudinal body image assessment: factor analysis of the body-self relations questionnair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5(1&2), 135-144.
- Carver, C. S. & Scheier, M. F. (1981). *Attention and Self-Regulation: a Control-Theory Approach to Human Behavior*. Springer, New York.
- Cash, T. F., Winstead, B. A., & Janda, L. H. (1986). The great American shape-up. *Psychology Today, April*, 30-37.
- Forbes, G. B., Jobe, R. L., & Revak, J. A. (2006). Relationships between dissatisfaction with specific body characteristics and the Sociocultural Attitude Toward Appearance Questionnaire-3 and Objectified Body Consciousness Scale. *Body Image*, 3, 295-300.
- Franzoi, S. L., & Shields, S. A. (1984). The body esteem scale: Multidimensional structure and sex differences in a college popul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8(2), 173-178.
- Fredrickson, B., & Roberts, T. (1997). Objectification theory: Toward understanding women's lived experiences and mental health risks.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1, 173-206.
- Garner, D. M. (2002). Body image and anorexia nervosa. In T. F. Cash, & T. Pruzinsky (Eds.) *Body Image: A Handbook of Theory, Research, and Clinical Practice* (295-303). New York: Guilford.
- Gardner, W. L., Gabriel, S., & Lee, A. Y. (1999). "I" value freedom, but "We" value relationships: Self-construal priming mirrors cultural differences in judgment. *Psychological Science*, 10(4), 321-326.

- Halliwell, E., & Dittmar, H. (2003). A qualitative investigation of women's and men's body image concerns and their attitudes toward aging. *Sex Roles, 49*, 675-684.
- Harrison, K., & Cantor, J. (1997). The relationship between media exposure and eating disorders. *Journal of Communication, 47*, 40-67.
- Heine, S. J., Takemoto, T., Moskalko, S., Lasaleta, J., & Henrich, J. (2008). Mirrors in the head: Cultural variation in objective self-awarenes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in press)
- Markus, J. H., & Kitayama, S. (1991). Culture and the self: Implications for cognition, emotion, and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98*, 224-253.
- McKinley, N. M. (1998). Gender differences in undergraduates' body esteem: The mediating effect of objectified body consciousness and actual/ideal weight discrepancy. *Sex Roles, 39*, 113 - 123.
- McKinley, N. M. (1999). Women and objectified body consciousness: Mothers' and daughters' body experience in cultural, developmental, and familial context. *Developmental Psychology, 35*, 760 - 769.
- McKinley, N. M., & Hyde, J. S. (1996). The Objectified Body Consciousness Scale: Development and validation.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0*, 181-215.
- Mendelson, M., Mendelson, B. K., & Andrews, J. (2000). Self-esteem, body esteem, and body mass in late adolescence: Is a competence S importance model needed?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21*(3), 249-266.
- Mintz, L. B., & Betz, N. E. (1986). Sex differences in the nature, realism, and correlates of body image. *Sex Roles, 15*, 185-195.
- Noll, S. M., & Fredrickson, B. L. (1998). A mediational model linking self-objectification, body shame, and disordered eating. *Psychology and Women Quarterly, 22*, 623-636.
- Pliner, P., & Chaiken, S. (1990). Gender differences in concern with body weight and physical appearance over the life spa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6*(2), 263-273.
- Police-Lynch, M., Myers, B. J., Kliewer, W., & Kilmartin, C. (2001). Adolescent self-esteem and gender: Exploring relations to sexual harassment, body image, media influence and emotional expression.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0*, 225-244.
- Roberts, T., & Gettman, J. Y. (2004). Mere exposure: Gender differences in the negative effects of priming a state of self-objectification. *Sex Roles: A Journal of Research, 51*(2), 17-28.
- Rodin, J., Silberstein, L., & Striegel-Moore, R. (1985). Women and Weight: A Normative discontent. In T. B. Songeregger (Ed.), *Psychology and Gender*. Lincoln, NE: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 Singelis, Theodore M. (1994). The measurement of independent and interdependent self-construal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0*(5), 580-591.
- Shilling, C. (2000). 몸의 사회학 (임인숙 역). 서울: 나남출판. 원본출판년도는 1993)
- Spitzack, C. (1990). *Confessing excess: Women and the*

- politics of body reduction*.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Stiegel-Moore, R. H., & Franko, D. L. (2002). Body image issues among girls and women. In T. F. Cash, & T. Pruzinsky (Eds.) *Body Image: A Handbook of Theory, Research, and Clinical Practice* (183-191). New York: Guilford.
- Strelan, P., & Hargreaves, D. (2005). Reasons for exercise and body esteem: men's responses to self-objectification. *Sex Roles*, 53, 495-503.
- Takata, T., Omoto, M., & Seike, M. (1996). Construction of a revised scale for independent and interdependent construal of self. *Memoirs of Nara University*, 24, 157-173 (in Japanese).
- Taylor, S. E. (1989). *Positive illusions: Creative self-deception and the healthy mind*. New York: Basic Books.
- Tiggemann, M. (2005). Body dissatisfaction and adolescent self-esteem: Prospective findings. *Body Image*, 2, 129-135.
- Wade, T. J., & Copper, M. (1999). Sex differences in the links between attractiveness, self-esteem and bod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7, 1047-1056.
- 1 차원고접수 : 2009. 1. 19.
심사통과접수 : 2009. 3. 6.
최종원고접수 : 2009. 3. 18.

Objectified Body Consciousness, Body-Esteem and Self-Construals in East Asian Women: A Cross-National Study on Korean, Chinese, and Japanese College Students

Wan-Suk Gim
Ajou University

Eun A Park
Daegu University

Takemoto Timothy
Yamaguchi University

This study investigated the validity of the objectified body-consciousness scale(OBC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OBC, body-esteem, and independent-interdependent self-construal based on the survey data drawn from female college students in three East Asian countries: Korea, Japan, and China. 160 Korean, 140 Japanese, and 90 Chinese female college students responded to questions designed to measure OBC, body-esteem, and self-construals. The results showed that OBC factor structure in Korean sample is the same as the original OBC structure. However, in the Chinese and Japanese samples, the OBC factor structure is same as the original one, but specific items are somewhat different from the original OBC items. This means that some items of sub-factor are not an appropriate for Japanese and Chinese in its current form. OBC sub-factors, body surveillance, shame, and control beliefs are correlated to body-esteem. There are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s between shame and both appearance esteem and weight esteem, but none of the OBC sub-dimensions is non-significant correlation with bodily function esteem. Body surveillance, shame, and control beliefs are correlated to self-construals. Interdependent self-construal shows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s with body surveillance and shame, but has a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with control beliefs. Overall, these results revealed that females' OBC is affected by interdependent self-construal. Furthermore, the results supported the assertion that different socio-cultural, political, and economic contexts in the three nations are related to the different OBC structure and body-esteem level among female college students.

Key words : OBC(objectified body consciousness), body-esteem, body-image, self-construals, cross-national study, Korean, Chinese, Japanese, Women